

한반도 첫 수도 고창소식

11
2019
제 452호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가자 고창, 달리자 고인돌!”



제17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풀코스 / 하프코스 / 10km / 5km

2019. 11. 17 (일) 출발 : 오전 10시

장소. 고창공설운동장



▷주최/주관 : 고창군체육회 ▷후원 : 전라북도 고창군

대한민국 식초도시 선포 먹거리 산업, 천년대계 식초(食醋)로 이끈다

우수농산물(복분자·보리·고구마 등) + 게르마늄 온천수 + 시간 = 자연이 준 기적의 물

한반도 첫수도,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식초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

고창군은 11월1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 천년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식초문화도시 선포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처음 시도되는 식초도시다.

선포식에는 초항아리에 고창 대표 농산물(보리, 복분자, 고구마 등)과 게르마늄 온천수를 활용해 식초를 담그는 과정이 퍼포먼스로 펼쳐졌다. 우수농산물이 건강한 게르마늄 온천수와 만나 오랜 시간 발효되면 '인류 최고의 묘약'인 명품식초로 탄생한다. 고창은 2015년부터 매년 식초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약 200여명의 식초교육생을 배출했다. 또 발효식초연구회에 약 50여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복분자 식초를 개발한 안문규 씨는 지난해 초대 고창군 농식품 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초는 '인류 최초 조미료'로 잘 알려져 있다. 먼 옛날 냉장기술이 없던 시절, 먹다 남은 술이 변질돼 발효되면서 탄생했다. 과일이나 곡류를 발효시키면 술이 되는 데 그 술을 더 숙성시키면 식초가 되는 것이다.

발효식초에는 몸에 좋은 유기산들이 함유돼 있다. 이 다양한 유기산은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다. 발효식초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천연 피로 해소제 기능도 한다.

세계식초 시장 규모는 12억6000만 달러로 앞으로도 매년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식초시장 규모 역시 1500억원 가량으로, 이 중 발효식초는 소비계층의 세분화와 양념, 음료, 건강, 미용 등으로 활용되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군과 식품기업이 손잡으면 대박

전국 9개 우수사례 중 무려 3개가 고창군과 협업사례

최근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관한 '2019농업-기업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에서 무려 3곳이나 고창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매일홀딩스의 상하농원은 지난 2016년 고창군 상하면 일원에 개장 이후 약 33만명이 찾으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순당 고창명주의 경우 원료공급은 법인에 참여한 고창 농민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복분자를 수매했고, 양조기술이 앞선 국순당의 기법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다. 하이트진로음료 역시 고창산 블랙보리를 수매해 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보리수매제 폐지 후 위축됐던 국내 보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우수사례는 고창의 자연환경과 농업인들의 노하우, 적극적인 행정기관에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고창군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 타 시·군에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특작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속도로 IC가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나 있어 유통도 편리하다.



상하농원



하이트진로 블랙보리



국순당 명작



비격진천뢰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고창군의회 김영호 부의장(좌측)과 차남준 의원(무장
읍성 복원 추진위원장, 중앙), 김기육 선운산농협조합장(우측)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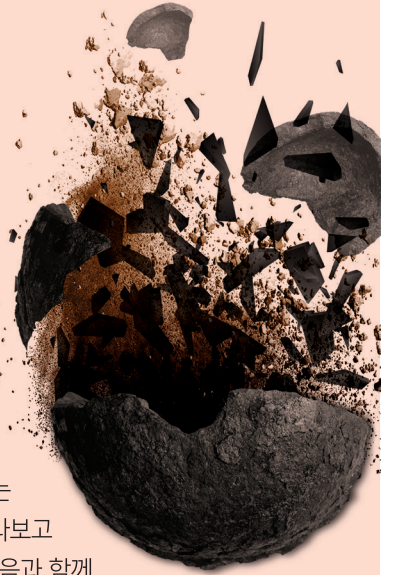
고창 무장읍성 출토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진천뢰 특별전

임진왜란 개전초기. 경주성 탈환을 위한 공격이 시작됐다. 비처럼 쏟아지는 왜군의 조총에 성에 접근조차 쉽지 않자 조선군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됐다. 몰래 성 아래 군사를 잠복시킨 뒤 둥근 쇳덩이를 성 내부로 발사한 것. 왜군은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것이겠거니 했으나 쇳덩이는 성안을 굴러다닐 뿐이었다. 시시하다는 듯 바라보고 발로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쇳덩이 안에 있던 쇳조각이 비산하며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조선군에 승리를 안긴 쇳덩이가 ‘비격진천뢰’다. 무쇠로 만든 탄환 속에 화약과 쇳조각을 넣고 폭발 시간까지 조절하는 당시로선 최첨단의 무기. 명나라와 일본도 알지 못했던 조선의 ‘비밀병기’이자 ‘귀신폭탄’이었다. 고창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비격진천뢰 특별전이 연말까지 열리고 있다. 지난해 고창군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나온 11점이 1차 보존처리를 마치고 고향을 찾았다.

특별전에선 비격진천뢰의 제작과 조립 과정을 3D프린트 복원품으로 상세히 소개하며, 비격진천뢰를 쉽게 이해하도록 몰입형 대형영상도 마련했다.

전시기간 | 12월22일까지(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 고창고인돌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고창읍성 배경으로 맛보는 고창 밥집의 특별함

최근 고창에서 인기배우 공유의 화보촬영을 진행한 ‘에피그램’과 고창군 귀농청년이 운영하는 ‘마켓레이지헤븐’이 협업해 ‘에피그램-로컬마켓 레이지헤븐’ 행사를 지난 10월26일 오후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열었다. 이번 로컬 마켓은 건강한 먹거리와 음악공연, 토크쇼, 깜짝 레스토랑이 어우러졌다. 레스토랑에선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밥집 메뉴가 선보였고, 참가자들에게 ‘고창 백반 맛집 지도’도 나눠줘 ‘나만의 백반집’을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했다. 마켓레이지헤븐 유상진 대표는 “고창의 백반집 이모님들은 미술쟁 스타 셰프 부럽지 않은 태도로 손님을 맞이한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담은 김치를 내어주는 게 상식이고 계절의 흐름에 맞는 반찬 한 두 개는 꼭 내어야 직성이 풀리는 고창의 이모님들이다”며 “그들의 고집스러운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고창 백반’을 알리는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전했다.



개인 문학관 ‘책이있는풍경’ 수년째 가을 인문학콘서트 열어

지난 10월19일 오후 고창군 신림면 입전마을 안에 있는 ‘책이있는풍경’에서 북콘서트가 열렸다. 통기타 가수 공연, 시 낭송, 류지남 시인과 김홍정 소설가와의 만남, 성악, 클래식 연주, 문학평론가의 인문학 강연 등이 알차게 진행됐다. ‘책이있는풍경’은 원래 사업가이자 문학평론가인 박영진씨의 개인 서재이자 침터로 만들어졌다. 수만권의 책으로 한국문학관과 어린이도서관이 꾸며졌고, 이후 황토방, 시인의 방, 작가의 방, 철학이 있는 방, 북카페 등이 들어서며 ‘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개관 이듬해인 2013년부터 가을이 되면 북콘서트도 연다. ‘책이있는풍경’의 매력에 빠진 작가와 가수, 성악가, 연주자 등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서고 있다.





제267회 임시회 마무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제267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였다. 의안처리결과를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0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체육시설(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만돌권역 거점개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동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장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전북대 농생명학과(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2020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인규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의원을 선임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다.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 김영호 부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군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2일 개최하여 다음 달 12일까지 31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1월13일부터 11월29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과·관·소별 2020년도 시책업무 보고,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또한,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관·소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12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 만큼 군정질문을 비롯한 2020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사랑 첫걸음! 고창군의회 고창사랑상품권 구매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10월 21일 50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의원과 직원이 함께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이번 고창사랑상품권 구입은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려 우리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조규철 의장은 “고창사랑상품권 구입은 침체된 고창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고창사랑상품권 구매를 통해 지역소비촉진이 이뤄져 고창경제가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고창군의회에서는 고창사랑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할인판매방안을 집행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관내 1,600여 가맹점에서 불편함 없이 활용가능한 지역고유의 화폐로, 우체국을 제외한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O·X 청렴 골든벨을 올려라

고창군 의회사무과(과장 이종선)에서 10월 24일 공직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O·X 퀴즈와 단답형 문제를 푸는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개최 결과 의사팀 전민술주무관과 의정팀 김윤성주무관이 1위, 2위를 차지했다. 이종선 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에 대해 생각해보고, 청렴지식을 습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 인문학 도시로 거듭나다



고창군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이 모두 있어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 그런 고창이 우리네 일상에 녹아 있는 ‘삶 속의 인문학’,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접하는 인문학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국민도서문화진흥회에서 주관한 ‘책 읽는 지자체’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군단위 최초로 ‘제3회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고창의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 또 상설 인문학 강좌(매주 월, 화) 운영,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책과 문학을 즐기는 생활문화 조성으로 ‘책 읽는 대한민국’에 기여해 왔다. 지역민의 학습에 대한 열의는 고창군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토대를 형성했다. 마침내 고창군은 교육부가 지정한 ‘2019년 평생학습’ 신규 도시에도 이름을 올렸다. 고창군청 동학인문팀 나윤옥 팀장은 “고창군이 생각하는 인문학 도시는 일부 지식인들 중심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소박한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평생교육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지역문화를 부흥시키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 출신 이찬규 교수, 인공지능시대 인문학 거두(巨頭)로 주목

고창에서 소설가를 꿈꾸던 시골소년이 대한민국 인문학의 거두(巨頭)로 성장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대학신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대학가 차세대 리더’로 이찬규 교수(중앙대 국어국문학과·인문콘텐츠연구소장) 등 7명을 선정했다. 고창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소설가를 꿈꿨던 이 교수는 현재 국내 ‘인공지능 인문학(AIH;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ies)’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이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하는 게 인공지능인문학이다. 이 교수는 “어떻게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인공지능과 공존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인공지능인문학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고창군이 진행하는 ‘365 인문고창’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교수는 “문화적 지표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인문학을 통해 군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고창군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과 손잡고 지적장애인, 치매 어르신 실종 막는다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한빛원자력본부가 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빛원전은 상습 실종 치매노인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와 통신비를 무상 지원한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상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배회감지기는 상습 실종 이력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이후 실종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보급할 예정이다. 고창군과 고창경찰서도 이상신호 감지와 긴급 신고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배회감지기 보급이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내 금융기관과 손잡고 나눔과 기부·인구 늘리기 노력

고창군이 10월22일 관내 13개 금융기관(고창우체국,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고창부안축협, 고창군수협, 고창군산림조합, 고창신협, 고창새마을금고, 고창농협, 대성농협, 선운산농협, 해리농협, 흥덕농협)과 '나눔과 기부, 인구늘리기, 고창사랑하기' 민·관 실천협약 제3호를 체결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은 고창군의 인구감소와 나눔과 기부에 민관이 상호 협력과 실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4대 종교단체를 시작으로 6월 경제단체에 이은 세 번째 협약이다. 고창군은 인구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만들고, 금융기관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기관들도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내고장 내직장 주소찾기' 운동을 적극 펼쳐가기로 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대표 상차림 나왔다



고창군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한반도 첫수도 고창 밥상 추진상황 보고회'를 겸한 '대표 메뉴 시연회'를 열었다. 고창밥상에선 보리의 고창에 걸맞게 지역 대표 농산물 보리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다. 또 풍천장어, 바지락, 한우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맛깔 나는 반찬들의 시식코너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앞서 지역 외식업체들은 지난 7월부터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고창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국물 맛내기, 소스개발, 응용 가능한 핵심 레시피 교육 등 고창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군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높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을 개발해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심원면 동작구 사당4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

고창군 심원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영곤)가 10월14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4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근형)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심원면장, 심원면 주민자치위원장, 서울 동작 사당4동장, 사당4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원과 사당4동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예술, 도·농 프로그램 개발 등 폭넓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지역의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신림면 화룡마을 이판섭 이장 단감 40박스 기부

10월10일 고창군 신림면 화룡마을 이판섭 이장이 정성껏 재배한 태추단감(식감이 아삭한 신품종) 40박스를 신림면 경로당 과 독거노인에게 나눠주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판섭 이장은 “나눔과 봉사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부안면 행복나눔체 태양광전등 50개 달아드려

부안면 행복나눔체(대표 강길구)는 밤에 길이 어두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태양광 전등 50대 설치 봉사를 완료했다.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태양광 전등 50대를 구매하고, 지난 9월부터 10여명의 회원들이 생업이 끝난 후 저녁에 모여 태양광 전등을 설치했다. 마을 골목길과 홀로계신 어르신 집 앞에 전등을 설치해 어둠을 밝혔다. 부안면 행복나눔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모아 이웃들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2018년 설립됐다.



작지만 맛있고 건강하다

62명의 농부와 함께하는 고창 이엠푸드, 땅콩

고창군에는 흙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EM미생물을 이용해 농사부터 제품 생산까지 하는 기업이 있다. 62명의 농부와 함께 땅콩농사를 짓는 고창읍에 위치한 고창이엠푸드이다. 땅콩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와 농업대학, 토양 연구분야까지 농업 전문지식을 쌓아온 딸 그리고 62명의 농부가 국산 땅콩 품종 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고창땅콩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고창이엠푸드의 땅콩은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고창 황토밭에서 생산한다. 국내 땅콩 20여 가지 품종 중 가장 좋은 땅콩으로만 8가지를 선발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땅콩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창이엠푸드의 대표상품은 흙만 씻어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고창 풋땅콩,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삼각땅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수확한 땅콩을 수경재배한 땅콩새싹도 생산하고 있다. 땅콩새싹만 넣어 저온으로 다려 땅콩새싹의 진하고 씹싸름한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땅콩새싹차 지킬수와 추운겨울 노지에서 재배한 어린 보리순으로 만든 보리새싹분말도 주력상품이다.

· 홈페이지_ <https://smartstore.naver.com/emfood62> · 연락처_ 1577-3062



고창군 일자리 지원 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연번	업체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유)금호산업	1	공사현장담당자	연봉 3,500~4,00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2	고창종합사량철강	1	단순노무	월급 175만원 주5일근무/08:00~17:30	채용시	고창읍
3	(주)동산유지	1	곡물가공생산직	월급 175만원 주5일근무/08:00~18:00	채용시	고수면
4	광산농장	2	단순근로	월급 175만원/주5일근무 07:30~17:30 (토요일주근무)	채용시	고수면
5	사임당푸드(영)	1	생산직	월급 200만원 주5일근무/06:30~16:00	채용시	고수면
6	연경전자	1	영업납품사원	월급 200~230만원 주5일근무/08:00~19:00	채용시	고수면
7	라운푸드시스템(주)	10	생산직	시급 8,350원/주5일근무 (일요일~목요일)/ 08:00~17:00 연장근무,출퇴근 차량가능자	10.15	부안면
8	침바다 영어조합법인	1	생산직	시급 8,350원/주5일근무 08:30~18:00(잔업가능하신분 지원)	채용시	부안면
9	이앤지푸드(주)	2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부안면
10	도솔식품	1	농산물가공포장 생산직	월급 180만원/상여금100% 주5일근무/08:30~17:30	채용시	아산면
11	(주)신흥	1	전기기능사 용접기능사	월급 120만원 주5일근무/1일 4시간	채용시	아산면

구인·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일자리 상담_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T.063-560-2366)

11월 고창의 인물 오희길



아산면 반암리 금암사(琴巖祠)

오희길(吳希吉 1556~1625) 고창읍 교촌리 출신, 조선중기 문신이다.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에서 태어나 1591년(선조 24)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이 되고, 다음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태조의 영정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그리고 여러 사서와 제기 등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겼다. 1593년 조정의 명령으로 태조의 영정을 아산현에 옮기고, '조선왕조실록'과 사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1596년(선조 29) 태조의 영정과 '조선왕조실록', 제기 등을 다시 강화도로 옮겼다가 이듬해 영변 묘향산 보현사(普賢寺)로 옮겨 병화를 면케 하였다. 1618년 (광해군 10)에 위성공신(衛聖功臣)에 녹훈되었다. 그 뒤 전쟁의 참화를 수습할 채신책과 인심수습을 상소하였다. 허균과의 불화로 1619년 거제로 귀양을 갔다. 1625년 귀양지에서 사망하였다.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에 오희길을 모신 사우(祠宇)인 금암사(琴巖祠)가 있다.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지사랑이’

이정지 / 책마을해리 / 2019
군립도서관 11월 중 비치예정

이정지 작가와 한국화가 이유정 작가가 마음을 모아 그린 그림책 ‘지사랑이’가 우리고장 책마을해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시골 풍경과 오래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온 사람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88세 할머니 삶을 그림으로 글로 뒤따라 가다보면 절로 고향의 정이 느껴집니다. 중·장년층은 삶을 돌아보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29회 동리대상, 김영자 명창 수상 영예

판소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모두 꿈꾸는 ‘최고의 상’. ‘제29회 동리대상’ 시상식이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지난 11월 6일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 동리대상은 10세에 입문해 평생을 판소리 대중화에 헌신한 김영자 명창에게 돌아갔다. 대구에서 태어난 김 명창은 10세때 강산제 보성소리의 정통 계승자인 정권진(1927~1986) 으로부터 춘향가와 심청가를 배우며 판소리에 입문했다. 신동 소리를 들으며 13~14세에는 김준섭(1913~1968) 선생이 조직한 창극단에서 소리를 배웠다. 26세 고창출신으로 국창(國唱)의 칭호를 얻고 만정제 판소리를 정립한 김소희(1917~1995) 선생에게 1년 반 동안 심청가와 흥보가를 사사했다. 이후 성우향 선생에게 심청가와 춘향가를, 정광수 선생에게 수궁가를, 박봉술 선생에게 적벽가를 배웠다. 12살 때인 1962년 경주신라문화제 판소리 소녀부 장원을 시작으로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전성기인 30대 때에 이르러선 남원전국명창대회(1984년) 판소리 대상,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1985년) 판소리부문 장원(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1992년 KBS국악대상, 1998년 국립창극단 우수단원상, 2002년 한국국악협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현지 (13, 고창초6)

판소리전수관, 차세대 소리꾼 양성 요람 자리매김

최근 고창판소리전수관 교육생들이 잇따라 전국 판소리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며 소리의 고창을 빛내고 있다. 김현지(13·고창초6)양은 지난 10월13일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서봉 판소리·민요 대제전에 참가해 초등부 대상을 거머쥐었다. 김양은 흥부가 매를 대신 맞으면 주는 엽전 다섯 냇을 받고 좋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흥부가 중 ‘저 아진’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김양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제3회 임실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도 초등부 최우수상을 타면서 ‘초등부 판소리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중등부에 출전한 정윤진(14·고창여중1)양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양은 본선에서 흥부가 최대의 하이라이트인 ‘둘째 박 타는 대목’을 열창해 심사위원과 관객들을 매료 시켰다. 고창군 판소리전수관 관계자는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과 진채선 등 고창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판소리의 성지다”며 “전수관을 중심으로 고창소리의 명맥을 계승·발전시킬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안내]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 행위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조 승 희
정 경 미
김 경 아

2019.11.16.(토) 오후 2시 고창문화의전당

장소: 고창문화의전당 대상: 누구나 방문접수: 전북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접수기간 : 2019. 11. 1.(금)~11. 15.(금) 17:00 마감 (전여석 당일 현장 접수 13:00~13:30)
문의: 전북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063)564-0862
주관: 고창군 / 주최: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 협찬: 만들어준계, 더울은협동조합